

LG생활건강 넷제로 정책

제정 : 22년 7월

정책목적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진정한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LG생활건강은 ‘최고의 지속가능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일용소비재) 기업’이라는 ESG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고객, 환경,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배구조, 제품, 사회, 환경 측면에서 ESG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글로벌 공동의 해결 과제인 UN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활용품, 화장품, 음료 부문과 같이 매일 쓰고 버려지는 FMCG를 다루는 산업의 특성상 LG생활건강은 기업 운영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구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2030년 45%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달성을 약속하는 ‘2050 NET ZERO’를 선언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1.5도 기온상승 제한목표 수립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모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IPCC 역시 2018년 10월 발간한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다양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의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기온상승을 1.5°C로 제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 내 직접연소 장치에 대한 열 회수 및 교환, 공정개선 등의 공정 효율성 개선을 이뤄가고 있으며, EV100 이행을 위한 전략수립, 태양광 발전,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검토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50 Net Zero 달성은 전국에 위치한 LG생활건강의 사업장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더불어 용수 및 에너지의 사용,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대응전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LG생활건강은 1947년 창립 이래 지켜온 ‘고객의 아름다움과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생활문화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력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 탄소중립 목표

LG생활건강은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 84개 과제를 도출하고 2030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IPCC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30년 45%라는 Top-down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정 효율성 개선, 연료 전환, 신재생에너지 적용 확대, EV100 등 수행 가능한 과제들의 검토를 통해 산정한 Bottom-up 감축목표와의 간극을 줄이는 수단은 향후 다양한 감축수단들 간의 경제성 비교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제품인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사업장별로 생산시설 내 노후 장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를 통해 공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의 도입 검토, 부생수소 공급이 확보되는 지역 생산시설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검토하여 추가로 증설 및 신설되는 사업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기술 부서에서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저감 기술 도입, 공정 효율 개선 등으로 국내외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여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의 특성상 기후변화에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필수소비재 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 온실가스 감축

LG생활건강은 매년 외부기관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온실가스 규제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IPCC 권장 목표를 적용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기술 부서에서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저감 기술 도입, 공정 효율 개선 등으로 국내외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여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② 신재생 에너지 도입

LG생활건강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23년부터 TP공장과 청주공장에 각각 0.5MW, 0.9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25년부터 여주, 천안공장에 각 0.5MW, 1.2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30년부터는 기타 5개 사업장에 총 0.9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구축하여 사업장 내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0년부터 2개 사업장(울산, 온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총 5.7MW의 전력을 공급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재무적 투자와 탄소포집저장 기술인 CCUS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검토하여 추가로 증설 및 신설되는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전기/수소차 도입(EV100)

LG생활건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소유 및 임대 차량 전체를 2035년까지 전기 및 수소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LG생활건강 및 자회사 차량 81%를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고, 2035년까지 100% 교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부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여, 향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00% 감축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Ambition

